

## ■ 헤수스 말베르데:

### 근대성의 경계에 위치한 사악한 성인

헤라르도 고메스 미첼

멕시코의 가톨릭교회는 500여년 동안 교회의 정신적·제도적 기획에 반하는 일련의 불리한 여건을 헤쳐나왔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선 현재에도 교회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150년 전, 헌법상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고 국가가 세속적 후광을 차지한 나라에서, 교회는 대체로 종교적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다. 것처럼 극단적인 정치적 세속화의 파노라마 속에서도 민중의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보호막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교회는 교리의 기틀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해왔다.

분명한 점은 그 영향권이 교리 부문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인데, 가톨릭 색채의 기독교 신앙심이 멕시코의 상이한 사회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회는 정부와 엘리트와 같은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한 부문들과 주요한 ‘협



헤수스 말베르데(Jesús Malverde) 상을 모신 제단. 멕시코 시날로아 주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마약의 성자’이다.

약들’을 맺은 반면, 하층민들과의 관계는 주로 수직적이고 교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지속적으로 가톨릭 제의와 제도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가톨릭 영역 내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분쟁과 저항 전략이 존재했는데, 헤게모니와는 전혀 무관한 부문에 기원을 두고 발전해 온 흐름이었다. 지금 내가 언급하는 것은, 가톨릭 교리의 토대에서 출발해서 대안적이고 유사 종교적인 제의를 결합시키거나 소위 민중 신비주의에서 출발한 신앙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역은 신앙심에 대해 교회가 내리는 판단과는 무관하게 믿음과 인간 경험에서 출발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신앙으로 흘러간다.

이처럼 멕시코 민중 신비주의로부터 출발해서 명성을 얻은 한 인물이 바로 ‘마약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헤수스 말베르데(Jesús Malverde)인데, 이 인물은 후안 솔다도(Juan Soldado), 테레사 우레나(Teresa Urrena), 카보라(Cabora) 성녀 등 민중적으로 ‘신성화’된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위상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특정 시기에 상이한 상황으로 인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처벌받았다. 다른 한편 그들이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통칭되자—현상(status quo)에 대해 숭배자들이 취하는 입장에서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자—,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제의의 출현은 정부의 법적 탄압과 교회 측의 배척이 결합되는 상황이 되었다.

헤수스 말베르데라는 인물의 실존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분명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신화가 뒷받침하는 여러 상이한 이야기와 전설 중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는 입장은 헤수스 말라르데가 1870년 무렵 멕시코 북부의 한 주인 시날로아(Sinaloa)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건설 혹은 철도 노동자였고, 그의 부모는 그 지역 지주들에 의한 과도한 착취로

인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그러한 부조리 때문에 헤수스 말베르데는 자기 손으로 정의 실현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헤수스 말베르데는 시날로아 산악 지역에서 로빈 후드처럼 부유한 농장주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당국에게 의적에 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헤수스 말베르데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갖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주 지방 경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의 동료(compadre) 한 명이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고 배신했다는 사람들도 있으며, 의적의 의협심을 재삼 강조하고자 당국에 맞서던 중 부상을 당한 헤수스 말베르데가 친구에게 자신을 당국에 넘기고 현상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헤수스 말베르데가 죽은 다음에 시신을 나무에 매달고 장사 지내는 것을 금함으로써 일벌백계이자 숭배자들에 대한 경계로 삼았다. 이러한 ‘의협심’과 ‘순교’는 헤수스 말베르데라는 의적에 대한 민중적 제의를 탄생시키는 효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는 그 같은 민중이 수백만에 이른다.

헤수스 말베르데의 신화 탄생 맥락을 분석하는 작업은 곧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던 멕시코 근대화와 산업화의 여명기, 다시 말해서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독재시기를 다루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가 『아메리카 민중 종교 Popular Religion in America』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민중적 신앙심 등장의 촉매 가운데 하나는 사회 구조의 변화이며, 소위 서구 근대화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 변화는 특정 부문의 세계관을 비틀어 놓는다. 일반적으로 사회 변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특정 부문은 성스러운 것이나 마술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안착함으



차량에 그려놓은 헤수스 말베르데 (오크타운)

로써 자신들을 내팽개치고 서둘러 떠나버린 세상에서 신이 개입하여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마누엘 발렌수엘라 아르세(Manuel Valenzuela Arce)는 민중 신비주의를 분석하면서, 숭배자들의 세계관이 엮어내는 경험의 매트릭스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그 세계관은 비동시적이고 이질적인 청사진 속에서 숭배자들이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것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위상의 하락 앞에서 “민중 부문이 신성하게 여기는 성상이나 도상이 개입하는데, 이런 성상이나 도상은 공식 종교가 호의적으로 보는 대상과 다른 경우가 흔하다.”

사실상 헤수스 말베르데는 가톨릭교회가 성인으로 여기는 것

도 아니며, 정부가 영웅적 인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다. 제도권이 호의적으로 보는 인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헤수스 말베르데에 대한 제의의 등장은 제도권의 계보와는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며, 반대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근대화를 강행한 체제가 무시한 주민들의 법적 정의 또는 신적 정의에 대한 기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처음부터 헤수스 말베르데의 숭배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다 타데오를 부르듯이,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도움은 많은 경우 일상적인 생존의 문제, 가령 풍작이나 질병 치유나 풍어 등에 대한 기원과 관계가 있다. 숭배자들은 기적을 본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 의적인 성인에 대한 제의와 신화를 유지하는 미시담론의 그물망을 형성해간다. 힐드 린더만(Hilde Lindemann)이 밝히듯, 이러한 유형의 민중 ‘대응논리(contranarrativa)’는 일부 제도권 논리의 억압적 편향에 저항하는 반면, 교회나 정부의 출판물이나 공공 매체와 같은 제도권 논리는 민중 신앙을, 무지하기 때문에 범법자를 숭배하는 미신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정의에 대한 민중적 회구의 근원은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대대적으로 등장한 폭력과 비합법적 행위, 가령 마약거래 같은 행위를 조장해 온 체제의 무관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데, 마약거래 부문은 정황상 헤수스 말베르데 숭배 풍조에 일조했으며, 아울러 민중적 제의에 대해 제도권이 악마시 여기는 일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근대화 과정과 필사적인 신자유주의 과정의 극단에서 사회 하층의 특정 집단이 마주하게 되는 한계상황이 명확해지는 장면 속에서 가장 불안정한 현상들 중의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나타나는 이주 현상인데, 그런 이주는 자신의 출신지를 그리고, 그에 수반되



는 결과로,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던 지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 부문에서 문화적 탈구를 야기해왔다.

이러한 한계상황 속에서 헤수스 말베르데 상은, 가령 범죄자, 시골뜨기, 치카노, 마약쟁이와 같은 민중들을 저급한 주체로 간주하는 체제에 의해 상처받은 정체성의 징후들을 신앙심에서 재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세계관과 민중들의 정착지를 재결합시킨다. 헤수스 말베르데 상은 시날로아 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제의에 단골로 등장하면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수천에 달하는 멕시코인의 이동 경로를 동행하는 성인 상으로 변한다. 어떤 이들에게 기적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시장으로 마약 한 꾸

러미를 넘겨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가 하면, 멕시코 시골의 고질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일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인 또 다른 이들의 염원은 미국 국경 순찰대에 붙들리지 않도록 기원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헤수스 말베르데에 의탁하는 숭배자들은 이주와 마약 운반 경로 상의 상이한 지점에 조그마한 치성소를 세워가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그 경로는 다름 아닌 세계 시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 노동의 거리낌 없는 분업을 조용시키는 경로, 마약까지 포함시킨 소비재의 왜곡된 유통에 대응하는 경로다. 작가 다니엘 사다(Daniel Sada)가 언급하듯, 요즘은 기적에 대해 헤수스 말베르데에게 감사를 표하러 쿨리아칸에 있는 원조 치성소로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티후아나나 바디과라토는 물론 국외인 콜롬비아의 칼리나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의 '지점'에서도 얼마든지 배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적과 관계된 작은 이야기에서 비롯된 증언의 대응서사로부터 시작된 헤수스 말베르데의 신통한 신앙에 대한 확신은 숭배자에게 영매(靈媒 agencia)가 될 가능성, 아니면 최소한 주도적인 담론에 맞설 저항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 같은 기적들을 믿고 또 들려주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민중들이 순례 과정에서 수복해가고 재건해가는 문화적 영토 속에 지속적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오스카르 리에라(Oscar Liera)의 희곡 『신의 섭리의 기수 El jinete de la Divina Providencia』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수스 말베르데를 숭배하는 것은 사악한 정부에 맞서 저항하는 한 방식이라고 선언할 때 잘 드러나듯이, 일종의 폭로이다.

마지막으로, 헤수스 말베르데 신앙은, 다양한 사회 부문을 구조적으로 배제시킨 국가에 대해 민중의 믿음과 신앙심으로 저항

과 비판의 전선을 형성하는 작은이야기의 그물망으로부터 기능을 발휘하며, 민중들은 시날로아 주 신비의 의적과 ‘공모’ 속에서 근대성의 경계에 위치한, 일종의 영매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 강성식]

## 참고문헌

- Liera, Oscar. 1996. “El jinete de la Divina Providencia”, en *La nueva dramaturgia mexicana*. Selec. Introd. Vicente Leñero. México: CONACULTA.
- Lindemann Nelson, Hilde. 2001. *Damaged Identities, Narrative Repair*. Ithaca: Cornell U P.
- Sada, Daniel. 2000. “Cada piedra es un deseo”, en *Letras Libres*. Mexico: marzo-2000.  
<http://www.letraslibres.com/index.php?art=6235>
- Valenzuela Arce, José Manuel, comp. 1992. *Entre la magia y la historia: tradiciones, mitos y leyendas de la frontera*. México: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 Williams, Peter W. 1989. *Popular Religion in America: symbolic change and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헤라르도 고메스 미첼(Gerardo Gómez Michel) – 바하칼리포르니아 대학 교수

---